

국내 종합상사, 자원개발에 주력

삼성, 석유 생산량 1일 1만6000배럴 ... 대우, 3개 광구에 8억배럴 매장

국내 종합상사들이 자원과 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물산은 2008년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미국 멕시코만 앵커(Ankor) 광구를 미국 테일러사로부터 인수해 현재 5개 해상유전과 17개 플랫폼에서 유전 개발과 석유 생산을 하고 있다.

인수 당시 1일 생산량이 1만4000배럴에서 현재 1만6000배럴로, 매장량은 1000만배럴에서 7100만배럴로 크게 늘어나 성공적인 인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2007년 중국 마황산 서광구에서 생산을 시작한 데 이어 알제리 이사우안 유전에서도 상업적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LNG(액화천연가스), 리튬, 니켈, 유연탄 등의 자원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G상사는 석탄 개발사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LG상사는 직접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MPP유연탄광을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 엔삼 탄광 등 해외 5개 석탄 광산을 확보하고 있다.

또 2008년 탐사단계부터 참여한 중국 완투고 유연탄광은 9월 중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연간 500만톤 생산량을 목표로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LG상사는 “석탄 사업에서 국내 상사 중 취급물량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아시아 최대 석탄 트레이더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철광석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2010년 9월 7억달러를 투자해 브라질의 자원개발·에너지 기업인 EBX그룹 소유 MMX의 지분 13.8%를 확보하고 남미 지역에서 철광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최근 남미 철광석 광구에서는 매장량이 초기 예상인 9억4000만톤보다 배 이상 많은 23억톤으로 추정됐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주력 자원은 가스다.

2011년 2월부터 미얀마 A-3광구 미야(My) 가스전에 생산정을 시추해 최근 가스 산출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우인터내셔널은 해저 구조물, 육상 가스터미널, 파이프라인 등 가스 생산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구축이 끝나는 2013년 5월 상업생산에 들어간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04년 미얀마 A-1광구에서 쉘(Shwe) 가스전 탐사에 성공한 데 이어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A-1광구 쉘퓨(Shwe Phyu) 가스전과 A-3광구 미야 가스전을 차례로 발견했다.

3개 가스전의 가체매장량은 4조5000억 입방피트(원유 환산시 약 8억배럴, LNG 환산 시 약 9천만톤)인데 이는 국내 기업들이 지난 30년간 해외에서 발견한 석유가스전 중 최대 규모라고 대우인터내셔널은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11>